

## 강민국·유경국 태극마크 달았다

(광주일고 3년) (동성고 3년)

### 2009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대표팀 18명 선발

내달 25~30일 서울 개최... 日 등 6개국 참가

광주일고 강민국과 동성고 유경국이 제8회 아시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한국대표로 뽑혔다.

대한야구협회(KBA)는 15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박태호(대구고)감독이 사령탑을 맡게 되는 대표팀에는 내야수 강민국과 투수 유경국 등 각 포지션 별로 18명의 선수가 선발됐다.

팀에서 유격수를 맡고 있는 내야수 강민국(우투우타·3년)은 175cm 70kg로 정교한 타격을 선보이며, 손목힘이 좋아 장타능력이 견비하

고 있다. 빠른 발을 보유한 강민국은 수비도 안정됐다는 평가다.

강민국은 "대표팀에 선발돼 영광이다"며 "팀이 필요할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타자로 우승의 주역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178cm 76kg의 유경국(우투좌타·3년)은 체인지업, 슬라이더, 반포크볼을 구사하며 두툼한 배짱이 장점이다. 타격에도 재능을 보이고 있다.

16일 개막하는 대륙기 참가를 위해 남해에서 훈련중인 유경국은 "컨트롤을 가다듬는데 많은 연습을 했고, 직구구속도 145km까지 올랐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해 좋은

피칭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는 아시아야구연맹(BFA)의 주최로 2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대회는 내달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서울 목동구장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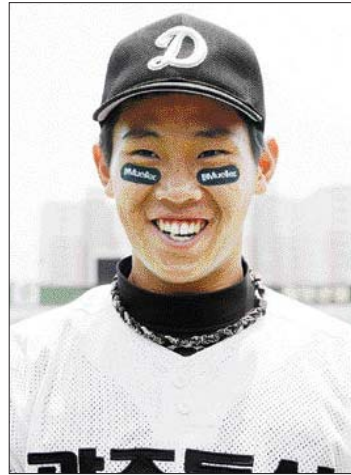
한국, 일본, 대만, 중국, 태국, 스리랑카 등 6개국이 참가하며 2개 조 풀리그로 진행된다.

2003년 대회 우승 이후 2005, 2007년 준우승에 머물렀던 한국 청소년 대표팀은 8월16일부터 22일까지 강화 훈련을 갖고 6년 만의 우승 탈환에 도전한다.

◇청소년대표팀 명단



<강민국>



<유경국>

▲감독 = 박태호(대구고) ▲코치 = 이영복(충암고) 정윤진(덕수고) ▲투수 = 이현준(아람고) 박화람(상원고) 안승민(공주고) 유경국(동성고) 김용주(북일고) 문성현(충암고) ▲포수 = 김민수(상원고) 정민우(개성고) ▲내야수 = 최현철(서울고) 문상철(배명고) 이제우(신일고) 이인형(덕수고) 강민국(광주일고) 이성근(경기고) ▲외야수 = 김경도(덕수고) 신원재(대구고) 김재우(북일고) 나경민(덕수고)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온 가족이 국가대표

이순철-이성근父子 대 이어 청소년야구대표

‘온 가족이 국가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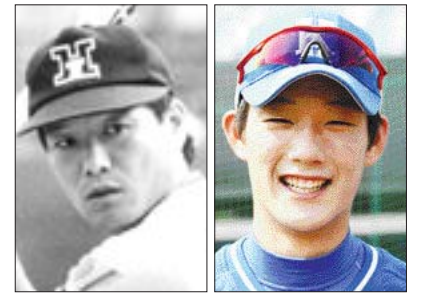
이순철 전 LG 감독의 아들이자 경기고의 유격수 이성근(3년)이 대를 이어 청소년 야구대표에 선발돼 화제다.

이성근은 15일 발표된 아시아 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 대표로 선발돼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게 됐다. KIA 타이거즈의 유일한 신인왕 이순철 전 감독은 광주상고(현 동성고) 2학년 때 대표팀에서 뛰었던 야구 대선배.

대표팀 발탁으로 부자가 나란히 태극마크의 영예를 안은 것은 물론 온 가족이 국가대표라는 진기록도 세우게 됐다. 서울특별시시마협회 코치인 어머니 이미경씨는 승마 국가대표를 지냈다.

이성근은 "아직 부모님의 명성과 위치에는 못미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근은 지난 6월 광주에서 열린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아버지를 속 빼닮은 외모와 플레이로 눈길을 끌었다. 185cm의 장신인 이성근은 아버지의 빠른 발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슬라이딩



<이순철>

<이성근>

을 하는 모습도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 공을 맞추는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타격 센스도 대를 이었다.

하지만 우투우타였던 아버지와 달리 우투좌타. 아버지는 특유의 심드렁한 표정으로 외야를 누볐지만 아들은 유격수로 날렵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파워가 부족하고 송구시 팔로우 동작이 불안한 것은 아버지의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

이성근은 "내야수인 만큼 수비 연습을 많이 했다"며 "이긴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최경주가 15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던베리 링크스 에일사 코스에서 열리는 제138회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를 앞두고 연습라운딩 9번 홀에서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박태환 "내 적수는 中 장린"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 2연패 경계령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은 당시 "아시아 선수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자신이 이어 2위에 오른 중국의 기대주 장린(22)을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하는 200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자유형 400m 2연패와 1,500m 기록 단축을 목표로 내건 박태환에게 가장 어려운 적수가 바로 장린이다.

세계수영연맹(FINA)이 지난 10일(50m 롱코스 기준)까지 기록을 바탕으로 매긴 2009년 세계 랭킹에 따르면 자유형 400m 1위는 장린이다. 랭킹은 올해 출전한 대회에서 거둔 최고 기록 순으로 매겼다. 남자 자유형 400m 세계기록은 은퇴한 '인간 어뢰' 이안 소프(호주)가 2002년 작성한 3분40초8이다.

장린은 지난 4월 열린 중국선수권대회에서 3분42초63을 기록했다. 박태환이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세운 아

시아 최고기록(3분41초86)에 0.77초 모자란 다. 장린은 베이징올림픽에서는 박태환에 0.58초 뒤진 3분42초44로 2위를 차지했다.

박태환의 올해 자유형 400m 최고 기록은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열린 자넷에반스 인비테이셔널대회 예선에서 세운 3분50초27이다.

물론 박태환이 미국 전지훈련의 성과를 점검하려고 올해 유일하게 출전한 공식대회라 기록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올해 장린의 최고 기록보다 7초 넘게 뒤지는 성적이다.

박태환이 자신의 최고 기록 단축을 노리는 자유형 1,500m에서도 장린이 14분47초51로 올해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박태환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오를 때 자유형 1,500m에서 14분55초03으로 아시아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장린이 베이징올림픽에서 14분45초84로 아시아 최고 기록을 10초 가까이 단축해버렸다.

박태환과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 간 맞대결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자유형 200m에서는 펠프스가 최근 세계대회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미국선수권대회에서 1분44초23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연합뉴스

## PGA 브리티시오픈 오늘 개막

## 던베리 에일사 코스 더 어려워졌다

전장 7,204야드·벙커 추가...16·17·18번홀 드라마 준비

16일 개막하는 제138회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 개최지 스코틀랜드 에어셔의 던베리 링크스 에일사 코스(파 70·7천204야드)는 1977년과 1986년, 1994년에 이 대회를 유치했던 곳이다.

특히 1977년 당대 최고의 스타 톱 왓슨과 잭 니클라우스(이상 미국)가 클라레 저그를 놓고 벌인 대결은 아직도 역대 최고의 명승부로 골프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던베리에 처음 서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이번 대회를 앞두고 1977년 왓슨이 접전 끝에 니클라우스를 1타차로 꺾고 우승하는 경기 비디오에이프를 보며 코스를 분석했다.

아일랜드해가 보이는 이곳은 완만한 초원과 거친 모래 언덕, 해안 절벽으로 절경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프로 선수들에게 던베리는 브리티시오픈이 열리기에는 너

무 쉬운 코스라는 조롱을 받아왔다.

1977년 대회 2라운드 때 마크 헤이스는 7언더파 63타로 브리티시오픈 최저타 기록을 세웠고 1986년 2라운드 때 그렉 노먼(호주)도 같은 스코어를 적어냈다. 니 팔도는 "던베리에서는 파67로 설정해야 한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1994년 대회 우승자 니 프라이스는 "바람만 불지 않으면 이 코스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스 설계자 마틴 에버트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한다.

1994년 6천957야드였던 전장은 7천204야드로 늘어난 33야드가 늘어난 474야드, 파4인 5번홀은 벙커를 뒤로 옮기고 티박스에서 250야드에서 320야드

지점 페어웨이 양쪽에 4개의 벙커를 파 놓았다. 또한 그

린 주변에도 4개의 벙커가 도사리고 있어 가장 까다로운 홀로 꼽힌다.

승부처가 될 16번(파4), 17번(파5), 18번홀(파4)도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 16번홀은 두번째 샷을 그린 위에 잘못 올리면 굴러내려와 개울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559야드의 17번홀은 쉬워 보이지만 바람이 분다면 티샷을 페어웨이에 올리기 힘들다.

왼쪽으로 휘어지는 18번홀은 1977년 왓슨과 니클라우스의 승부가 갈렸던 곳으로 '백주의 결투'(Duel in the Sun)라는 별명이 붙었다. 휘어지는 지점과 그린 옆에 만들어진 벙커가 공을 삼킬듯이 입을 벌리고 있다. 대회 3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파드리크 해링턴(아일랜드)은 "링크스에서 벙커는 워터 해저드와 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벙커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즈도 "벙커에서 그린을 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발타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벙커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 추성훈 안와골절 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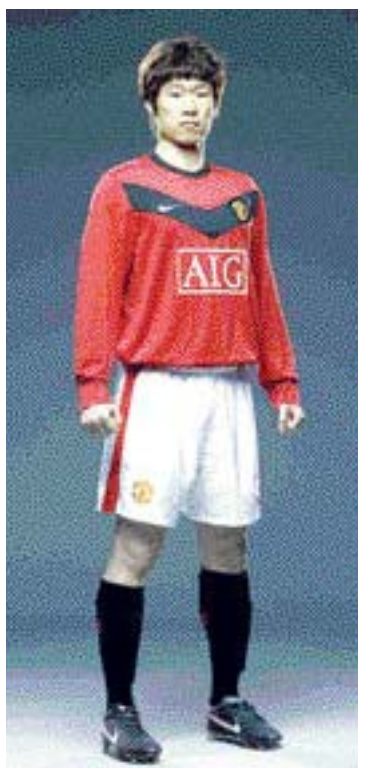
격투기 스타 추성훈(34·일본명 아키야마 요시히로)이 미국 종합격투기 UFC 데뷔전에 서 눈 주위 뼈가 골절되는 안와골절로 당분간 결장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격투기 매체 '엠에이뉴스닷컴'은 15일(한국시간) 네바다주체육위원회가 지난 12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UFC 100' 대회에서 왼쪽 안와골절 부상을 입은 추성훈에게 9월10일까지 의학적 출전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사이트는 또 추성훈이 안과 전문의에게 골절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내년 1월8일까지 출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바다주체육위원회는 추성훈이 대전료 4만 달러에 승리 수당 2만 달러, 엘런 벨처(25·미국)와 대결이 '오늘의 경기(Fight of the Night)' 선정되면서 얻은 보너스 10만 달러 등 모두 16만 달러(약 2억원)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지성의 맨유 새 유니폼

세계적인 명문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2009·2010 시즌 새 유니폼을 입고 뒀다. /연합뉴스